

2018년 8월 13일

오키나와국제대학에 미군 헬기가 추락한 지 14년째를 맞으며 (성명)

오키나와국제대학
이사장·학장 마에쓰 에이켄

2004년 8월 13일, 이 시간 이 자리에, 미군 헬기가 추락하여 불타오른 사고로, 학생, 교직원, 시민, 현민 모두를 공포로 몰아넣은 지 오늘로 14년째가 됩니다. 그 날의 추락 현장에 있어서의 참사는 물론, 미군의 부당한 사고 처리에 대한 시민과 현민의 강한 분노가, 세월의 흐름과 함께 희미해져 가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미군 헬기 추락사건 참사의 기억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헬기 추락사건에 대한 분노의 기억을 다시 한번 선명히 상기하고, 추락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후텐마 비행장의 폐쇄를 거듭 요구하고자, 여기에 강한 결의를 담아 「후텐마 기지의 폐쇄를 요구하고, 평화의 존엄성을 전하는 집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성명을 발표하는 바입니다.

오키나와의 안전·안심·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은, 일본 전체 국토면적의 0.6%에 불과한 오키나와에 주일 미군 전용시설의 70.4%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과, 미군 관련 사건이 수없이 발생해 왔다는 점에서 명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12 월에는 후텐마 기지 소속 CH-53E 헬기의 창문이 기지에 인접한 후텐마 제 2 초등학교 운동장에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그 6 일 전에도 같은 모델의 헬기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부품이 보육원 지붕 위에서 발견되는 중대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인명 피해의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였으며, 안전해야만 할 아이들의 배움터인 학교시설에서 일어난 사고에, 아동들과 보호자, 학교관계자 및 현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2016년 12월 나고시 아부해안에서 발생한 후텐마기지 소속의 수직이착륙기인 오스프리의 추락뿐만 아니라, 작년 10월에는 수송 헬기가 히가시손 목초지에 불시착한 후 화재를 일으키며 크게 파손된 사고는, 우리들에게 14년전 참사의 기억을 다시금 되살리게 했습니다. 그 밖에도, 오스프리가 아미미공항 및 신이시가키공항에 긴급착륙하는 등, 미군 항공기 관련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군기지의 존재로 인한 위험성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총리대신을 비롯한 일본정부는, 오키나와의 미군기지 부담에 대한 경감을 몇 번이나 약속해 왔으나, 기노완시 중앙에 자리잡고 있는 후텐마 비행장의 상황은 개선되기는 커녕, 결함성이 지적된 오스프리와 노후화된 헬기가 현대의 상공을 비행하고 있어, 위험성은 오히려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민들의 필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헤노코 신기지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는 일본정부에 대한 오키나와 현민의 불신은, 증폭되어 가고만 있습니다.

오키나와국제대학은, 류큐·오키나와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바래 온 「진정한 자유와 자치의 확립」을 건학정신으로,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세계로 열린 대학을

지향해 왔습니다. 안전·안심·평화에 대한 염원은, 대학인 뿐만 아니라, 사상·신조를 넘어 만인이 원하는 것입니다. 대학과 지역사회의 평온과 안녕을 위협하고 있는 후텐마 비행장의 존속 하물며 고정화는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후텐마 기지의 철거는, 일본과 미국 양 정부에 의해 합의된 것이며, 현민 누구나가 학수고대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오키나와국제대학은, 본교에 헬기가 추락한 사건으로부터 14년째가 되는 오늘, 위험하기 짝이 없는 후텐마 비행장을 즉시 폐쇄·철거할 것을, 다시 한번 일본과 미국 양 정부에 강력히 요구함과 동시에, 평화를 간절히 원하는 오키나와의 염원을 세계로 발신·공유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